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55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제주도, 27일 10시 기준 해외 방문 입도자 총 83명 검사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즈음한 제주도의 입장
- 제주도, 신규 입도객 대상 공항 위킹스루 검사
- 제주도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 정부 건의
- [4보] 제주여행 미 유학생 모녀 CCTV 확인 어려운 장소 공개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설문대할망페스티벌 13년만에 취소
- 정부·17개 지자체, 제주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공유
- ‘제주광어회’ 드라이브 스루로 안전하게 맛보세요!

2020. 3. 27.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27.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27.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7명 (격리해제 4명, 격리 중 3명)

(단위: 명)

구분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2,244	7	4	3	0	2,237	101	2,136	103
일일 증감	+10	0	0	0	0	+110	+51	+59	+34
전국	376,962	9,333	4,528	4,666	139	367,629	15,219	352,410	

□ 입도객 현황 ['20.3.26.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3,043명 (작년 같은 날 대비 △66.9%, 전일 대비 △0.1%)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3,043	13,016	27	4	1	22
	2019년	39,397	34,831	4,566	2,722	290	1,554
	증감률	△66.9%	△62.6%	△99.4%	△99.9%	△99.7%	△98.6%
누계 (2.23.~)	2020년	526,010	519,739	6,271	480	605	5,186
	2019년	1,200,691	1,070,029	130,662	75,001	7,876	47,783
	증감률	△56.2%	△51.4%	△95.2%	△99.4%	△92.3%	△89.1%

○ 해외 입국자: 42명 (※특별입도절차 신고 기준)

(단위: 명)

일계				누계 (3.24~)
총계	유럽	미국	기타	
42	7 (17%)	18 (43%)	17 (40%)	159

□ 무증상자 검사 지원 현황['20.3.26. 기준]

(단위: 명)

구분	대구·경북 방문자		해외 방문자		정신·요양병원 신규입소자
	제주도민	도민 외	내국인(도민)	외국인	
일계	0	0	18(17)	0	0
누계(3.7.~)	54	11	45(39)	4	2

□ 자금지원동향['20.3.25.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84건/ 546명	562건/ 5,629명	362건	10,620건	260건	8,700건	12건	1,003건
처리	2건/ 0.08억	9건/ 1.73억	108건/ 45억	4,701건/ 1,813억	102건/ 32.4억	2,237/ 643.4억	10건/ 71.5억	896건/ 1024.7억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27.(금)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후속자료: 있음

제주도, 27일 10시 기준 해외 방문 입도자 총 83명 검사

- 26일 해외방문 내국인 18명(도민 17명) 검사... 대구·경북 방문자는 총 65명 검사시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해외를 방문한 입도객 18명(내국인 18명·외국인 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해외방문 이력을 지닌 무증상자 입도자에게 진단 검사를 시행 중이다.

□ 이로써, 제주도는 26일까지 해외 방문자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받은 34명과 제주 자체사업인 무증상자 검사 지원 대상 49명을 포함한 83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 이 중 도내 7번째 확진자 1명을 제외한 82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 26일 하루 동안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서 자진신고한 입도자는 42명으로, 전날 24일과 비교해 22명이 감소했다.

- 이들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지원 안내를 받았으며, 자가격리앱을 설치하

고 1대1 능동감시 등 특별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 한편,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47명으로 모두 자가 격리 중이며, 제주도는 이 중 34명의 검사를 완료했다.

□ 한편, 제주도는 26일에는 코로나19 검사자 중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는 없었다.

-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이 시행(3월 7일) 된 이후 검사 인원은 27일 오전 10시 기준 총 65명(제주도민 54, 제주 체류하는 타 지역 주민 11)이다.

- 26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0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96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41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55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26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50명, 출발 탑승객은 376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를 비롯해 26일 오전 현재까지 공항만 발열감시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26.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제주 출발	367	372	368	372	370	358	374	363	364
제주 도착	372	370	352	333	353	316	372	356	353

※ 출 · 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26. 기준]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 (3/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계	65	1	2	2	0	0	3	4	2
도민	54	1	1	1	0	0	2	1	0
제주 체류객	11	0	1	1	0	0	1	3	2

□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26. 기준, 잠정치]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3/11)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12~3/25)					
			3/12-3/20	3/21	3/22	3/23	3/23	3/24
196	134	62*	54	0	1	1	3	3

* 대 학 별 학 생 관 리 : 62명(제 주 대(격리기숙사31, 자가 등 23), 한라대(대 학 자체
숙소 6, 자가 2))

□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26. 기준]

공 · 항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열감지자	42	32	26	38	101	33	38	94	147*
누계(2/3~)	1,721	1,753	1,779	1,817	1,918	1,951	1,989	2,083	2,230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발열감지 8명 발열증상 없어 귀가조치, 1명 선별진료소 이송
(음성 판정)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더욱 크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나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급여나 소득이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액수는 적지만
공공복지제도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의 근원인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렸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또는 폐업으로 내몰려
생존위기에 봉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 도민이고, 우리 친지이고, 우리 이웃입니다.
긴급 구호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제주도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곳에 비를 뿌리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뭄피해가 더 긴급한 곳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우선 돌아갈 수 있게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급수로
이 위기가 끝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긴급한 재정 지원은
효율성과 실효성의 극대화에
그 초점과 목표를 두고,

지금 당장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집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지원 대상은
우선,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분들과 일용직 근로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근로자분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기사님들과 전세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분들,
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등이며

이분들은
기존의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특히 재원은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분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모아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최소한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센터와 소상공인센터, 관광업계 등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도 더 받겠습니다.

아울러

3월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재원 검토 등을 통하여
4월초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선정과 신청자 접수 등
각종 행정준비 절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상 선정과 신속 집행의 실무 부담은
행정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수해 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재난으로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경제도 비껴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천년의 탐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을
서로 돕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수눌음 정신’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 처절한 척박함을 넘어서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다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훌륭한 제주정신을 잉태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제주인에게 서려있는
배려와 양보의 제주정신을 통해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신규 입도객 대상 공항 워킹스루 검사

- 해외방문 이력 입도자 특별 관리위해 공항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입도객 대상 공항 워킹스루 진단 검사 및 이송 후 관리체계 등 제주공항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검역소를 통해 명단이 확보되거나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서 안내를 받은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공항 옥외에 설치된 워킹스루(Walking Thru)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고, 북미·유럽발의 경우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다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에는 임시격리시설에서 격리가 실시된다.

- 격리시설까지의 이송은 자차가 원칙이나, 자차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이송체계에 의해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 이후 자가진단 앱과 1:1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 앞서 제주도는 해외 체류 또는 방문 이력이 있는 국내·외 입도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는 해외방문 이력 있는 입도자로 인하여 제주도 내 코로나 19 제주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 제주도는 지난 26일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 ▲신규 입도객 대상 워킹스루 검사 등 제주공항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 해외방문자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시행한다.

□ 기존에 제주도에 입도해 있는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해서도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한다.

○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난문자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진단검사 실시 이후에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기존 절차대로 확진자 격리 및 이송조치·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 간 외출 자제 등 자택에서의 자율격리를 권고하며 주기적으로 1:1 전화 문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 제주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입도객 대상 특별관리대책을 실시함으로써 해외 입국으로 인한 제주도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제주도 해외입국자자가격리미이행시구상권청구 정부건의

- 27일 중대본 회의서 전달... 제주 여행 후 서울서 확진된 모녀 사례 인용 -
- 도민 건강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도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 적용해야” -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미이행 시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 제주도는 3월 27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영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 제주도는 이날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A씨는 제주에 머물렀던 4박 5일(3.20~3.24)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 등 지인 4명과 함께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 심지어 A씨는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3월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가 발생하고 자가 격리돼 생업이 중단됐으며, 동선 내 방문 장소 20개소도 폐쇄 및

격리조치 돼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접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A씨는 서울로 올라간 후 검사를 받고 3월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모친은 이튿날인 3월 26일 확진(무증상)됐다.

- 이들과 제주 여행을 함께 한 지인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A씨 모녀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 자기격리 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건의했다.

○ 제주도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26일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이며, 소송 상대 피고는 A씨 모녀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같은 날 오전 합동브리핑 모두 말씀을 통해 “앞으로 10일에서 14일까지는 A씨 모녀 등의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해외발 위험자들의 입국 및 입도에 대비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4보] 제주여행 미 유학생 모녀 CCTV 확인 어려운 장소 공개

-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및 수영장과 우도 원조로템가든 등 5개소 -
- 제주도, 공개된 장소·시간 확인 후 적극적인 신고·관심 당부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CCTV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고 도민의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 제주도는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A씨의 확진 소식을 통보받은 후 확진자의 진술과 CCTV, 카드사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 제주도는 3월 26일 낮 12시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A씨 모친의 양성 판정 소식을 추가 확인하고, A씨의 접촉자와 동선을 교차 확인하고 있다.
- 3월 27일 오전 10시 기준 3차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A씨 모녀의 접촉자는 47명이며, 방문 장소는 20개소다.
- 이는 어제(26일) 발표한 2차 역학조사 결과와 같으며, 제주도는 즉시 자가격리와 방역 소독 조치를 진행했다.

□ 이와 함께 제주도는 A씨 모녀의 접촉자를 찾기 위해 CCTV로 확인이 어려운 5개소의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장소는 ▲3월 22일 오후 8시 10분~9시 15분 해비치리조트 내 수영장 ▲3월 23일 오전 9시 30분~10시 14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3월 23일 오후 2~3시 우도 원조로템가든 직영점 ▲3월 23일 오후 4시 30분~5시 우

도 출발 성산포 도착 배편 ▲3월 24일 오전 9시 20분~10시 14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등이다.

□ 제주도는 A씨 모녀의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의심 증세가 있거나 같은 동선 안에 있는 도민들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도는 앞으로 동선 파악이 추가로 이뤄지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 강남구 확진자 모녀 이동 경로 [3.27 10:00 기준]

- 접촉자 : 총 47명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3.20	09:50~11:00	김포공항→제주 이스타항공 탑승 (ZE207) (마스크 착용)	승객 1 (승무원 4, 승객 37)	
	11:30~11:40	렌터카 서틀버스를 타고 퍼시픽 렌터카로 이동 후 차 렌트, (마스크 착용)	기사 1	방역소독 완료
	~12:13	CU 제주북성로점, (마스크 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3:15	하이엔드 제주(애월), (마스크 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6:42	번영마트(봉개초 근처), (마스크 미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7:00	한화리조트 제주로 이동 후 숙소에만 머뭄, (마스크 미착용)		
3.21	12:27	외출		
	13:54~14:17	자매국수 본점, (마스크 미착용)	직원 2, 손님 2 (손님 3명 조사중)	방역소독 완료
	14:18	굴하르방 삼성혈점, (마스크 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7:40	한화리조트 제주에 도착, (마스크 미착용)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17:47	리조트 내 지하1층 활어매장 방문, (마스크 미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7:50	리조트 내 GS 편의점 방문, (마스크 미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3.22	~11:36	한화리조트 제주 체크인, (마스크 미착용)	직원 2	방역소독 완료
	12:30~14:30	드르쿰다 in 성산, (마스크 미착용)	손님 2(조사중)	방역소독 완료
	15:05~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체크인 CU편의점, 놀멍, 야외수영장 (마스크 미착용)	직원 3	방역소독 완료
3.23	09:00~10:00	제주 해비치호텔 1층(조식), (마스크 미착용)		
	11:25~11:40	해비치 의원(표선), (마스크 착용)	직원 5	방역소독 완료
	11:53~11:58	소아약국(표선), (마스크 착용)	직원 2, 손님 3	방역소독 완료
	~12:36	성산포항 선착장 도착,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완료
	13:00~13:30	배 타고 우도로 이동,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완료
	13:34	우도하이킹레저, (마스크 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4:00~15:00	원조 로템가든 직영점, (마스크 미착용)	직원 2	방역소독 완료
	15:30~16:00	대니스 카페, (마스크 미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6:30~17:00	배 타고 성산포항으로 이동,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완료
	17:31	성산포수협수산물직판장, (마스크 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8:30~19:10	해왓, (마스크 미착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20:00~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CU 편의점, 놀멍 (마스크 착용)	직원 2	방역소독 완료
3.24	09:00~10:00	제주 해비치호텔 1층에서 조식, (마스크 미착용)		
	12:00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체크인, (마스크 착용)	직원 2	
	12:50~13:40	윈드1947 카트 테마파크, (마스크 미착용)	직원 3	방역소독 완료
	~15:00	퍼시픽 렌터카 반납, (마스크 착용)		
	15:00~15:25	렌터카 셔틀버스 이용하여 제주공항으로 이동, (마스크 착용)	기사 1, 직원 1	
	16:15	제주→김포공항 티웨이항공(TW724), (마스크 착용)		

※ 환자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경로 확인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설문대할망페스티벌 13년만에 취소

- 2020 제주비엔날레 개최 시기 6.17 → 8.18로 연기… 인재개발원 교육계획도 전면 수정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5월로 예정된 설문대할망페스티벌 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제주돌문화공원 일대에서 설문대할망페스티벌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해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콘텐츠의 자원화에 기여해왔다.
- 당초 행사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설문대할망제, 공연, 굿 문화제 등 2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었다.
-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해외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참석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도는 13년 동안 이어온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가 처음으로 취소된 만큼, 올해 행사를 대신해 그동안의 페스티벌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064) 710-7730

- 아울러 제주도는 ‘2020 제2회 제주비엔날레’ 행사도 연기한다.
- 제주도는 지난 18일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89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2020 제2회 제주비엔날레 행사를 오는 8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76일간

일정으로 조정했다.

- 도는 제주비엔날레 행사가 국제적인 대규모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의 문화가치를 국제화하기 위한 행사인 만큼 시기와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제주비엔날레 주최 측인 도립미술관에서는 3월중 행사추진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작품 제작 및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기간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기획전에 대한 연장 전시도 나설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제주도립미술관 관장 최정주 064) 710-4280

□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제주도는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일정도 조정 중이다.

- 도는 당초 3월까지 96개 과정 12,025명(공무원 53과정 9,360명, 도민 43과정 2,665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인재개발원이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 운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육운영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 이에 따라 집합교육은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하고,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운영해 33개 과정 7,516명(공무원 29과정 6,076명, 도민 4과정 1,4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사이버교육(전문, 정보화, 외국어교육), 독서통신교육 등
- 다만, 장기교육과정인 핵심인재양성교육(1.20~7.20)과 글로벌 리더양성과정 교육(1.20~12.11)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지원 근무와 사이버 외국어 교육 등으로 전환됐다.

- 제주도는 향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정하고 계획된 교육과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횟수를 조정, 변경하는 등 당초 계획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인재개발원 권기웅 교육운영과장 064) 710-7410

정부17개 지자체 제주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공유

-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사례로 소개 -
- 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되, 적극행정 통해 평시 동일수준 행정 서비스 제공 -

- 제주특별자치도의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Book drive-through)’가 정부와 17개 지자체에 공유되었다.
- 제주도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내 한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예약도서대출서비스’가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소개되고 공유됐다고 밝혔다.
-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는 사전에 온라인 등을 통해 미리 신청한 도서를 차 안에서 수령하는 서비스이다.
- 서비스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로 공공도서관 임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도내 15개 도서관 중 다른 13개 도서관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받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도서 대출을 시행해 오고 있다.
- 주중과 주말로 나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임시휴관 종료 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신청한 도서는 수요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한 도서는 토요일에 수령할 수 있다.

- 시행 초기인 3월 9일 기준, 사전 대출예약신청은 680명 1,736명이었으며, 현재까지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비롯한 비대면 예약도서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은 5,367명, 1만6,556권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범도민 차원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행정이 앞장서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도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 한편,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 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 국무조정실은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주요사례를 종합해 공유함으로써 전 공직사회가 이를 벤치마킹하고 적극행정에 보다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 관련 문의 : 소통혁신정책관 강승철 청렴혁신담당관 064)710-2080
한라도서관 현희경 문헌정보과장 064)71-8641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현황정보 및 도서예약대출서비스 장소

구분	도 서 관	주 소	대출장소
도	한라도서관	제주시 오남로 221(오라이동)	장애인주차장앞 (북 드라이브 스루)
제 주 시	우당도서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30(건입동)	소강당외부 출입문 앞 (북 드라이브 스루)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제주시 동광로12길 19(이도이동)	현관입구 부스설치
	조천읍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189	현관입구 부스설치
	탐라도서관	제주시 정원로 50	정문앞 부스설치
	애월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39	1층 현관입구
	한경도서관	제주시 한경면 두산로 84	1층 현관입구
	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서홍동)	1층 현관 앞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강정동)	1층 현관 앞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신효동)	1층 현관 앞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중문동)	1층 현관 앞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동홍동)	현관 앞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83	1층 보조출입구 (무인반납기방향)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44	1층 현관 입구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110번길 17-10	1층 현관 앞

‘제주광어회’ 드라이브스루로 안전하게 맛보세요!

- 양식수협, 3월 31일~ 4월 4일 한라도서관 주차장서 소비촉진 특판행사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본의 수입 규제와 소비 위축으로 위기를 맞은 양식 어업인을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의 제주광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올 들어 3월 26일 현재까지 양식광어 출하량은 4,861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609톤과 비교해 13.3% 감소한 수치이다.
 - 특히, 올들어 3월 26일 현재까지 출하금액은 404억3,2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1억8,800만원보다 무려 19.4%나 줄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식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긴급 지원해 차에 탄 채 구입할 수 있는 ‘제주광어 드라이브스루 특별판매’ 행사를 추진한다.
- 특판 행사는 오는 31일(화)부터 4월 4일(월) 한라도서관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행사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 판매는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담당하고 한 팩(500g)당 1만 원씩, 하루 판매물량은 400팩(200kg)이다.
- 제주도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판매장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 도는 드라이브스루 판매방식이 호응을 얻으면 판매처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한편, 제주도는 광어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 대상 ‘제주광어어묵’ 구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상품은 어업회사법인 제주수협유통에서 살아있는 제주광어로 가공한 꼬치바·광어가스 등 제주광어어묵 선물세트로 구성되며, 행사는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사진] 제주광어 드라이브 스루 특별판매 장소



※ 관련 문의: 해양수산국 홍충희 수산정책과장 064) 710-3240

-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방법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0.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참고 2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15일간(2020년 3월 22일 ~ 4월 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 국민 행동 지침 |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 시키기

|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2020.3.23.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감염병
NOW 1339
방역안전이 곧 생명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ncov.mof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참고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국민안전센터

꼭!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



질병관리본부
KDCDC

2020.3.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1항 제 2호)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발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동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기정품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최소 2m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세워서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화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준수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임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2020.3.6. 1/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2020.3.6. 2/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심리자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우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2020.3.6. 3/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1**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2**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4**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2020.3.6. 4/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5**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의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6**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7**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2020.3.6. 5/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기상담전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국가트라우마센터 | <https://nct.go.kr>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2020.3.6. 6/6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발행일 : 2020.2.27.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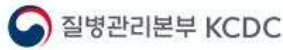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상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